

무관심·무의지·무책임에 바닥 치는 신도교무금

조계종 직영사찰 재정공개로 본 교무금 납부 실태

조계종이 4월 1일 중단 홈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 4등급(30억원) 이상 직영 사찰 재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각 사찰별 신도교무금 납부 실태가 드러났다. 해당 사찰은 봉은사(150억원)·조계사(138억원)·선본사(73억원)·보문사(36억원, 이상 일반회계 결산기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네 사찰 모두 총 수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100%를 넘었다. 하지만 신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무금 납부율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사찰은 보문사. 신도교무금 수입예산 700만원 중 단 99만원만이 걷혔다. 약 14%에 불과한 수치다.

선본사는 48%(176만원)였다. 이 같은 결과는 신규등록과 장기미납자 일괄 납부 등을 합산한 수치여서 실제 신도교무금 재납부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봉은사와 조계사는 각각 98%(3050만원), 79%(5500만원)를 기록해 비교적 모범적인 성과를 냈다.

그렇다면 사찰마다 교무금 납부를 편차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사찰 측의 신도관리 노력 여하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신도관리에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봉은사는 신도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교무금 내역과 재정을 공개해 신뢰를 얻고 있다.

차별진 봉은사 교무교육팀장은 “각종 신도교육에서 교무금 납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더불어 사찰확대회의 때 교무금 내역을 비롯한 재정을 공개한다”며 “재정공개로 통한 투명화가 신도들의 자발적인 교무금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봉은사는 2007년 국내 사찰 중 처음으로 재정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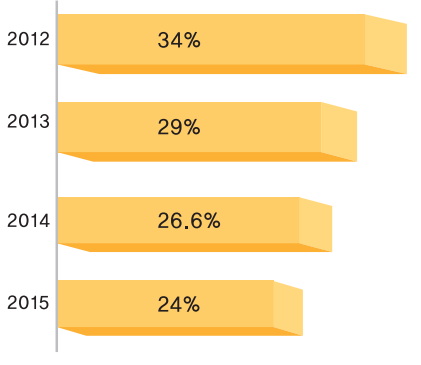
이 같은 노력은 조계사도 마찬가지다. 조계사는 교무금의 필요성과 전통찾기·불교용품점 등의 특전을 적극 알리고 있다.

반면 사찰예산에 있어 교무금 비중이 적은 기도사찰은 교무금 납부를 독려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기도사찰로 유명한 A사찰 재무 스님

은 “사찰에 신도 명부 등 자료가 잘 정리돼 있지 않음뿐더러 기도사찰은 신도보다 기도객이 많아 교무금 예산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내 홍보게시판에 교무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증은 있지만 갹신하지 않았다고

조계종 신도교무금 재 납부율



* 조계종 포교원 통계자료

- 지난해 교무금 재납부율 24%
- 사찰 노력 따라 결과 천차만별
- 재정 공개 모범사찰 재납부율 ↑
- 교무금 비중 적은 기도사찰 ↓
- 신행 장려 성격에 강제 어려움
- 재정 투명화, 납부에 큰 영향
- 불자들이 의식 고취 선행돼야

밝힌 한 불자는 “절에 다니면서 교무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중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에 따르면 신도는 2/4분기까지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각 종무기관과 신도회 등은 교무금 납부 시기와 방법을 신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고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교무금 납부가 부진한 때는 총무원장이 당해 종무기관에 경고

하고, 종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포교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처벌이 이뤄진 일은 없었다.

따라서 범조항에 명시된 ‘공고’를 ‘노력’으로 해석하면 일선사찰서 교무금 납부 안내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에 처벌이 어렵다. 즉, 불자들이 체감하는 사찰 측 노력과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교무금 납부에 있어 사찰 측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불자들이 각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조계종 신도교무금은 연 1만원으로 물가나 일반적인 회비 등에 비취볼 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무금 재납부율은 24%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2년 34%, 2013년 29%, 2014년 26.6%로 교무금 재납부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조계종 멤버십신도증 도입 이후 재발급과 신규로 신도 등록한 불자는 약 28만 명. 이 중 20만 명이 교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의 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무를 담당하는 B사찰 종무원은 “교무금 납부는 신도의 의무이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몇 해 동안 교무금을 체납한 불자들의 경우 체납분 해결보다 지속적인 미납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 납부를 요청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신도교무금은 본래 예산확충보다 불자들이 재적사찰에서 소속감을 갖고 조직적인 신행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성격이 짙다. 그렇기에 강제성을 띠기 어렵고, 이로 인해 원활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교원은 올해 신도교무금조정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간 포교원은 포교원장 장기 공백으로 인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섰고, 직영사찰 사례에서 보듯 재정투명화가 교무금 재납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덕현·윤호섭 기자



총사위로 캄보디아 고촌 극락왕생 발원

지난 4월 2일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와 글로벌 나눔 승가회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는 ‘한국-캄보디아 합동 위령 천도제’가 캄보디아 씨엠립의 작은 킬링필드로 불리는 ‘왓트마이 사원’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뿔뿔 승왕을 비롯해 왓트마이사원 주지 라츠리엔 스님(씨엠립사원연합회장),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 부총재 월암 스님, 국제종교문화연맹 회장 보우 스님, 글로벌 나눔승가회 이사 법운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영가들의 평안을 발원하는 천수바라춤 의식 장면. 캄보디아 씨엠립=김주일 기자

태고종 장기 내홍 원만히 해결 될까?

쌍방 사태수습 특위구성 합의...폭력 책임 묻지 않기로

폭력사태 등 극한까지 치달은 태고종 분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측과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 측은 4월 1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나 종단화합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폭력사태와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중단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 불교 태고종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구속 상태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은 4월 1일 각각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도산 스님 측은 대각 스님과 상

진 스님, 종연 스님 측은 대해 스님과 정호 스님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은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동수로 구성하며 앞으로 종단사태에 관한 수습안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안으로는 종법 개정과 종단 직제개편, 종단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또한 폭력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 태고종의 한 관계자는 “두 스님을 비롯한 양측의 주축 스님들이 1년 6개월 동안의 장기 갈등서 벗어나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태고종의 내홍은 도산 스님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23일 청사를 기습 점거하며 촉발됐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2월 11일 인원을 동원해 청사를 재점거했다가 하루 만에 퇴거했고, 총무원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청사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지난 11월에는 종정 혜초스님이 직접 나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의 직위를 해제하고 승정 인곡스님에게 전권 부여의 ‘유시’를 발표했으나, 사태 수습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김주일 기자

선학원, 장로원·범행단 본격 출범

6일 장로 20명 추대...“정신적 귀의처 될 것”

선학원이 원로회의격인 장로원과 재단 호법단체인 범행단을 구성했다. 재단 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4월 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4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 추대식 및 범행단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단은 앞으로 장로원을 정신적 귀의처로

삼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법진 스님의 장로 스님들에 대한 감사 및 휘장 봉정에 이어 대중의 삼배 예경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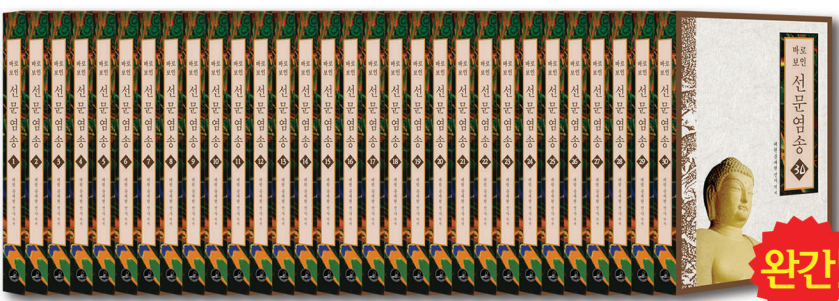
선학원 장로원장 해광 스님(수원 팔달사 회주)은 법어를 통해 “장로원은 행업을 잘 닦고 정법대로 실천하는 이를 우대하는 가풍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선

학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노승들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학원이 추대한 장로는 해광 스님(수원 팔달사), 보운 스님(진주 천진선원), 적조 스님(합천 무학선원), 지현 스님(포항 일출선원) 등 10명이다. 장로원은 정덕 스님(서울 인교선원), 종열 스님(대구 청수선원), 정수 스님(서울 북악사), 설호 스님(공주 동해선원) 등 10명으로 총 20명이다.

이와 함께 2부에서는 범행단장 승운 스님을 비롯한 각 지역 범행단 대표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해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칩니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기별 지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거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습니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민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